

A Study on Risk Factors,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Sang Young Han^{1#}, Cheung Sook Choi²⁺

¹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815, Gyeonhwon-ro, Huyong-ri, Munmak-eup, Wonju-si, Gangwon-do, Korea

²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357, Gongje-ro, Gangneung-si, Gangwon-do,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s among risk-factor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 city of Gangwon-do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st risk-factors turn out to be male ($P < .01$), the second grade in middle school ($p < .001$), and the lowest academic achievement ($p < .001$). The risk factors of adolescen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wer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factors.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facilitate school adaptation when adolescents face a crisis situation.

Key words: adolescent, self-efficacy, risk factors, career maturit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체적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요구되는 불안의 시기이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신체적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아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강해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 및 상황 요인도 청소년들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한다(Yoon, 200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6)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적위기, 가족적위기, 교육적위기, 사회적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위기청소년이 165만 명 수준으로 고위기군 47만 6천, 중위기군 117만 6천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적위기 청소년이 93만~110만 명, 교육적위기 청소년이 32만 3천 명~36만 4천 명, 사회적위기 청소년이 22만 명~42만 6천 명, 개인적위기 청소년이 16만 2천 명~40만 9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Yoon, 2005a). 선행 연구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겪는 한 가지 위기 요인이 종종 다른 위기 요인에 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 The 1st author: Sang Young Han, Tel. +82-33-738-1433, e-mail. laurabest@kduniv.ac.kr

⁺ Corresponding author: Cheung Sook Choi, Tel. +82-33-610-0451, e-mail. ccs4009@hanmail.net

가정 또는 또래 집단들에서의 청소년들은 부정적 문화의 영향, 또래압력, 가난, 부모개입의 부족,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나 공격, 비행경험 등에 의해 깊게 관여하고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5).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태로 그들 삶에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각종 중독, 폭력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삶에 대한 무의미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Jang, 2012).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청소년들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게 하고, 심화될 경우 학교 중도 탈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중도 탈락이 사회 중도 탈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Jung, 2011).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현재 과업중인 행동과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선택이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조직에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2007).

Hackett & Betz(1981)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진로목표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의 인지 수준이 적극적인 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며, 스스로 주어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진로선택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진로선택 시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진로관련 목표를 성취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이나 전공 선택을 할 때 성공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Lee, 2000).

청소년의 진로선택은 미래의 직업 및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이다. 성숙한 진로선택을 가진 청소년들은 성공적이고 만족할 만한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Savickas, 1994) 진로선택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직장생활 내에서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며 낮은 직업의식과 가치를 가지게 된다(Loughead, *et. al.*, 1995). 또한 인생의 목표가 없고 진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비행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낮은 진로의식이 지속된다면 성인 범

죄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Jung, 2011). 결국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거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청소년들은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준비가 대부분 부족하다(Jang, 2009). 이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본인의 미래 방향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진로에 어려움이 있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 사회구성원으로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사회·국가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크게 떠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발달과정 중 신체적 변화와 특성에 따라 위기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위요인인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생활요인, 지역사회요인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진로선택과 결정을 위한 진로성숙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기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교적응을 복돋울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기요인,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위기요인,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에 관한 연구로 청소년들의 위기요인이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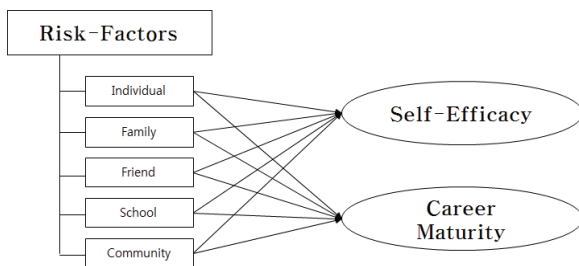


Figure 1. Framework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요인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3.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T시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중학생 95명과 고등학생 108명 총 2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부적절한 답변한 경우와 응답에 응하지 않은 7부를 제외한 총 196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및 방법

1) 위기요인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Lee(2009)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인 개

인 36문항, 가정요인 19문항, 학교요인 15문항, 또래요인 8문항, 지역사회요인 5문항 총 8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Hong(1995)이 사용한 도구를 Kim(2001)이 청소년 수준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Kim(200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Lee(1997)가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Jang(2009)이 사용하였으며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Jang(200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5.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17.0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위기요인,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위기요인 하위영역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연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94(48.0%)
	Female	102(52.0%)
School Year	1st grade in middle school	20(10.2%)
	2nd grade in middle school	24(12.2%)
	3th grade in middle school	48(24.5%)
	1st grade in high school	42(21.4%)
	2nd grade in high school	42(21.4%)
	3th grade in high school	20(10.2%)
Academic Achievement	High rank	61(31.1%)
	Middle rank	77(39.3%)
	Low rank	58(29.6%)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94명(48.0%), 여학생이 102명(52.0%)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20명(10.2%), 2학년이 24명(12.2%), 3학년이 48명(24.5%)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은 42명(21.4%), 2학년 42명(21.4%), 3학년은 20명(10.2%)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전체 응답자 중 77명(39.3%)이 '중위권'수준인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 61(31.1%), 하위권 58명(29.6%)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기요인,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기요인,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Table 2>).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하위영역인 개인($t=2.98, p<.01$), 가정($t=3.01, p<.01$), 또래($t=2.57, p<.05$), 학교($t=3.35, p<.01$), 지역사회($t=2.80, p<.01$)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t=-3.96, p<.001$)과 진로성숙도($t=-4.75, p<.001$)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위기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하위영역인 개인($F=6.06, p<.001$), 가정($F=4.84, p<.001$), 또래($F=3.42, p<.01$), 학교($F=4.69, p<.001$), 지역사회($F=3.49, p<.01$)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F=5.34, p<.001$)과 진로성숙도($F=4.63, p<.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위기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하위영역 개인($F=242.13, p<.001$), 가정($F=479.81, p<.001$), 또래($F=359.97, p<.001$), 학교($F=308.51, p<.001$), 지역사회($F=131.19, p<.001$)요인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F=405.30, p<.001$)과 진로성숙도($F=167.67, p<.001$)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r=-.209$), 가정($r=-2.11$), 또래($r=-.182$), 학교($r=-.233$), 지역사회($r=-.197$)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r=.322$), 자기효능감($r=.273$)에는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은 학업성취도

Table 2. Differences of relationships risk-facto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Variables	Category	Risk-Factors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Scheffe
		Individual	Family	Friend	School	Community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2.34±.67	2.81±1.23	2.48±1.18	2.67±1.08	2.09±.88	2.61±.85	2.82±.61	
	Female	2.09±.54	2.36±.87	2.11±.85	2.19±.94	1.78±.65	3.03±.64	3.15±.32	
	t	2.983**	3.006**	2.574*	3.345**	2.795**	-3.959***	-4.745***	
	p	.003	.003	.011	.001	.006	.000	.000	
School Year	1st middlea	1.64±.38	1.73±.80	1.66±.86	1.53±.63	1.35±.45	3.50±.56	3.07±.37	
	2nd middleb	2.52±.57	3.08±1.14	2.76±1.04	2.83±.98	2.13±.67	2.42±.72	2.57±.58	<Risk-Factors>
	3th middlec	2.30±.60	2.73±1.13	2.35±1.10	2.63±1.02	1.98±.69	2.69±.74	3.02±.49	b)c)e)d)a
	1st highd	2.21±.58	2.61±.99	2.46±.95	2.37±1.09	1.92±.67	2.84±.67	3.15±.48	<Self-efficacy>
	2nd high e	2.30±.65	2.68±.99	2.24±1.01	2.51±1.02	2.12±1.05	2.84±.89	3.01±.54	a)c)b
	3th high f	2.01±.54	2.14±1.01	1.93±.98	2.22±.97	1.73±.69	2.97±.63	2.95±.29	<Career Mat.>
	F	6.062***	4.839***	3.422**	4.690***	3.487**	5.344***	4.629**	d)c)e)b
p	.000	.000	.006	.000	.005	.000	.001		
Academic Achievement	high ranka	1.59±.20	1.45±.28	1.18±.46	1.36±.17	1.17±.30	3.58±.29	3.30±.26	<Risk-Factors>
	middle rankb	2.16±.45	2.42±.63	2.22±.63	2.32±.80	1.94±.62	2.99±.45	3.21±.26	c)b)a
	low rankc	2.93±.26	3.96±.24	3.54±.17	3.67±.00	2.69±.53	1.83±.20	2.37±.40	<Self-efficacy>
	F	242.127***	479.809***	359.967***	308.508***	131.190***	405.298***	167.674***	a)b)c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b)c

*p<.05, **p<.01, ***p<.001

(r=.146)에는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r=-.143)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r=-.842), 가정(r=-.903), 또래(r=-.886), 학교(r=-.868), 지역사회(r=-.759)요인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r=.710), 자기효능감(r=.879)에는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은 가정(r=.836), 또래(r=.821), 학교(r=.866), 지역사회(r=.810)요인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r=-.618)와 자기효능감(r=-.886)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기요인 하위

Table 3. Correlation of characteristics of subject, risk-factors,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N=196)

Variables	Risk-Factors									
	1	2	3	4	5	6	7	8	9	10
Gender	1									
Grade	.011	1								
Academic achievement	-.176*	.146*	1							
Risk-Factors	Individual	-.209**	.119	-.842**	1					
	Family	-.211**	.083	-.903**	.836**	1				
	Friend	-.182*	.008	-.886**	.821**	.879**	1			
	School	-.233**	.154*	-.868**	.866**	.794**	.781**	1		
Community	-.197**	.084	-.759**	.810**	.737**	.805**	.779**	1		
Career Maturity	.322**	-.094	.710**	-.618**	-.720**	-.676**	-.678**	-.532**	1	
Self-efficacy	.273**	-.143*	.879**	-.886**	-.875**	-.854**	-.876**	-.830**	.717**	1

*p<.05, **p<.01 1.Gender, 2.Grade, 3.Academic Achievement, 4.Individual, 5.Family, 6.Friend, 7.School, 8.Community, 9.Career Maturity, 10.Self-efficacy

Table 4.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N=196)

Predictors	B	β	t	TOL	VIF
Individual	.155	.189	1,629	.168	5,965
Family	-.220	-.468	-4,189***	.181	5,533
Friend	-.111	-.226	-1,965	.171	5,836
School	-.213	-.435	-4,304***	.221	4,523
Community	-.117	.181	-1,974*	.270	3,708
R ²			.571		
Adj. R ²			.560		
F			50.65***		
p			.000		

* p<.05, ** p<.01, *** p<.001

영역인 가정은 또래($r=.879$), 학교($r=.794$), 지역사회($r=.737$)요인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진로성숙도($r=-.720$), 자기효능감($r=-.875$)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또래는 학교($r=.781$), 지역사회($r=.805$)요인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진로성숙도($r=-.676$), 자기효능감($r=-.854$)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학교는 지역사회($r=.779$)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r=-.678$), 자기효능감($r=-.876$)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성숙도는 자기효능감($r=.717$)과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청소년 위기요인이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제1가설

청소년 위기요인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 위기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위기요인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입력한 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회귀분석과 공선성 진단을 하였다. 위기요인 하위영역 중 개인요인은 분산비율이 .98로 공선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F=50.65$, $p<.001$), 진로성숙도에 대한 총 변화량의 57.1%가 위기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가정요인($p<.001$)과 학교요인($p<.001$), 지역사회요인($p<.05$)은 비표준화계수 B값이 부호가 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위기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2) 제2가설

청소년 위기요인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 위기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회귀분석과 공선성 진단을 하였다. 위기요인 하위영역 중 개인요인은 분산비율이 .98로 공선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위기요인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92.62$, $p<.001$). 자기효능감 총 변화량의 88.5%가 위기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비표준화계수 B값이 모두 부(-)로 나타나 위기요인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요인을 제외한다면 가정($p<.001$), 학교($p<.001$), 지역사회($p<.001$)요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낮아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5. Predictors of self-efficacy

(N=196)

Predictors	B	β	t	tolerance	VIF	
Risk-Factors	Individual	-.235	-.188	-3.125**	.168	5.965
	Family	-.214	-.299	-5.162***	.181	5.533
	Friend	-.057	-.077	-1.291	.171	5.836
	School	-.206	-.276	-5.275***	.221	4.523
	Community	-.179	-.181	-3.818***	.270	3.708
R ²			.885			
Adj. R ²			.882			
F			292.62***			
p			.000			

* p<.05, ** p<.01, *** p<.001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104명 총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정량적인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t검증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였고 청소년의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위기요인 정도는 남학생이 평균평점 $2.51 \pm .96$ 으로 여학생 평균평점 $2.14 \pm .65$ 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1$),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위기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Lee(200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6)에서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현황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위기청소년들 중 남학생이 전체의 60.3%를 차지한다고 보고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지역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현대사회의 남녀 평등주의적, 여성 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소도시의 여학생들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청소년 문제 개입은 남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요구된다고 사료 된다. 학년에 따른 위기요인 정도는 중학교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p < .001$), 이런 결과는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 연구한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6)의 연구 자료에서 위기청소년의 15.6%가 중학교 2학년이 차지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 이런 결과와는 달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009)의 연구보고에는 1학년이 2, 3학년보다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학년을 거치면서 제2의 성장과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생활의 인지와 호기심이 일탈 행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위기요인정도는 하위권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p < .001$)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위기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Lee(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다. 또한 청소년의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요인에서 성적이 낮은 집단 평균이 성적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Kim(2015)의 결과와 유사하며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6) 실태조사에도 위기청소년의 전체 중 학습부진이 65.8%를 차지하며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부진율도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위기요인이 학습부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소년들의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요인은 자기효능감($p < .01$)과 진로성숙도($p < .01$)와는 부(-)적상관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원인분석력을 높여 자기효능감과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위기요인의 매개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찾아 효과를 낮춤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Sung(2015)는 위기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도를 높이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며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가정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가족탄력성 변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가족응집력과 가족지원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자기조절과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한 Lee(201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문화치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개인 정서조절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게 되어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Lee(2010)의 연구처럼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도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위기요인 중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p < .001$), 5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기 하위영역인 개인요인은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공선성이 높게 나타나 제외하였으며 또래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준화 계수(B)의 절대 값을 비교하면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학교요인이며, 그 다음은 가정, 지역사회, 또래의 순이다. 이것은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설명하는 Shin & Chun(201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Yoo & Lee(2016)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p < .001$), 88.5%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위기 하위요인인 개인요인은 공선성이 높게 나타나 제외되었으며 또래요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학교요인($B = -.206$, $p < .001$)이며 가정, 지역사회, 또래요인 순이다. Yoon(2014)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관계를 위해 부모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Lee(2014)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기효능감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이 가장 큰 학교요인은 또래와 같이 생활하는 학교공간이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 학교적응 등 학교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특정하게 국한된 청소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요인에 대한 이해와 노출을 방지하고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요인,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기요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교적응을 북돋울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104명 총 196명의 자료를 연구한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성별은 남학생이($p < .01$),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p < .001$), 학업성취도는 하위권 학생($p < .0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위기요인 하위영역인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위기요인 하위영역 중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은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도시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검증하였고 지역에 따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요인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청소년의 위기요인을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정책방안을 수립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할 만한 실증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Hackett, C. and N. E. Bets.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ong, Hye You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ang, In Kyung. 2012. The Effect of the Independent Living Program on Purpose of Life, Willingness of Independent Living and Career Maturity of Youth at Risk.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 Jang, Jung Im. 2009. Effect of Career Counsell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out of School and Self-efficacy of Career.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 Jung, Bok Hee. 2014. Comparison of Moral Disengagement, Stress, and Self-effica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at-risk.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Jung, Mi Suk. 2011.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School Adjus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Cho Sun. 2007.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Hope, Career Maturity with School Adjustment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 Kim, Hyun Soog.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Kye Jung. 2014. Effects of Resilience and School Cul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Factor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 Korea Youth Counselor. 2010. *Crisis Intervention: Manual for the Class Structure for Practitioners*.
- Lee, Gi Hag. 1997.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Focused on Job Valu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Lee, Hyang Sook. 2011. (The) Effect of the Tea Ceremony Program on Emotional Stability, Self-efficacy and Aggressiveness of Crisis Adolescents.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 Lee, Hyun Ju. 2000. Cognitive Style Difference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Korean Education Research*. 8: 235-257.
- Lee, Ok Sill. 2009. (A) Study on Family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Crisis Factors.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 Lee, Young Ku.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Focused on the Scout Activity. Ph.D.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 Lee, Young Kyung. 2013.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Self-efficacy, Mental Health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Ph.D.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 Loughead, T. A., L. Shu-Hui, and E. B. Middleton. 1995. Career Development for At-risk Youth: A Program Evaluatio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274-284.
- McWhiter, J. J., B. T. McWhiter, and R. J. McWhiter. 2007.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6. *A Study on the Policy Plan for the Status of Crisis Youth Support Facilities and Support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 Savickas, M. L. 1994. Measuring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54-62.
- Shin, Sun Ah and Jong Seol Chun. 201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efficacy.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7(3): 111-136.
- Sung, Dong Jea. 2015. The Relationship of At-risk Youth'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Yoo, Jae Man and Byung Wook Lee. 2016. The Effect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with Respect to the Impact on School Mal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41(2): 1-23.
- Yoon, Chul Kyung. 2005a. *Korea's Crisis Youth Support Policy and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OECD Third Meeting Data.
- Yoon, Chul Kyung. 2005b. *A Study on the Policy Plan for the Status of Crisis Youth Support Facilities and Support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 Youn, Young Ae. 2014. Parental Child Rearing Partices Perceived by Parent Themselves, and by Adolescents Self Efficac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6(4): 123-148.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계정. 2014.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탄력성과 학교문화의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초선. 2007. 남·여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희망, 진로의식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200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동제. 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아, 전종철. 2015.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17(3): 111-136.
- 유재만, 이병욱. 2016.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1(2): 1-23.
- 윤영애. 2014.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16(4): 123-148.
- 윤철경. 2005a.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지역사회협력체제. OECD 3차 회의자료.
- 윤철경. 2005b. 위기청소년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경. 2013. 청소년의 가족탄력성,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구. 2011.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리더십 생활 기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스카우트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실. 2009. 청소년의 위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숙. 2011. 차문화 치료가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 자기효능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8: 235-257.
- 장인경. 2012. 자립 동기화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의 삶의 목적, 자립의지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임. 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 2011. 진로성숙도가 비행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복희. 2014. 위기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차이: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위기청소년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위기개입: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Mar. 13, 2017 / Revised: Apr. 21, 2017 / Accepted: Apr. 26, 2017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요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T시 소재 중학생 96명과 고등학생 104명 총 196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요인은 남학생이($p<.01$),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p<.001$), 학업성취도는 하위권학생($p<.0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청소년의 위기요인 하위영역 중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이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교적응을 북돋울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청소년, 위기요인,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Profiles **Sang Young Han** :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n adult nursing and older care(laurabest@kduniv.ac.kr).

Cheung Sook Choi : She received Ph.D. from Korea University, Korea in 2010.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Major research is a study on the welfare policies for nurse,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prediction model in male junior high school student in kangwon province., etc.(ccs4009@hanmail.net).